

자동차산업 2022년 하반기 동향

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 자동차 판매량
2.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3. 순수전기차(BEV) 판매량
4. 수소전기차(FCEV) 판매량

II.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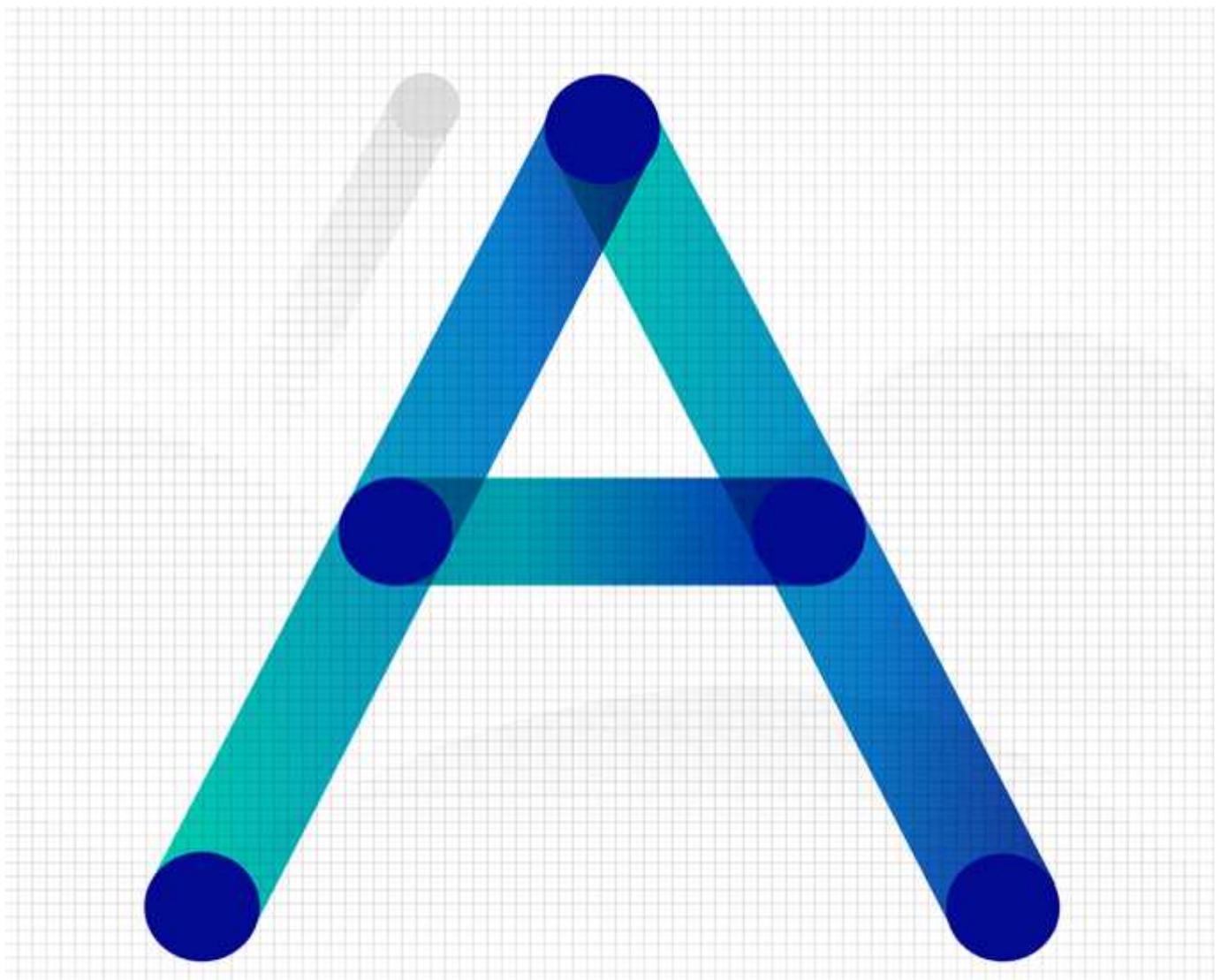
1. 국내 생산 및 판매
2. 자동차 수출
3. 해외 생산 및 판매
4. 국내 제조사 매출 및 동향

III. 시사점 및 전망

작성

책임연구원 김호건 (02-6252-3610)

인턴 차은지 (02-6252-3605)





< 요약 >

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4,322만대, 판매량은 4,145만대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12.8%, 7.8% 증가

- '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 전기 대비 10.1%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생산량인 4,480만대의 96.5% 수준까지 회복
- '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8%, 전기 대비 9.2%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인 4,442만대의 93.3% 수준까지 회복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순수전기차(B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하는 친환경자동차의 2022년 하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8.2% 증가한 811만대

-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14.2%에서 '22년 하반기 19.6%로 5.3%p 확대
- *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 ('21상) 9.5 → ('21하) 14.2 → ('22상) 15.7 → ('22하) 19.6
- '22년 하반기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순수전기차 467만대, 하이브리드 178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63만대, 수소전기차 0.7만대로 순수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

II.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

(국내 생산량) 20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 증가한 198만 대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전기대비 11.2% 증가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생산량인 192만대 상회

(국내 판매량)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87만대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생산지연 해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전기대비 8.5% 늘어나며 증가 추세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91만대)의 95% 수준까지 회복
-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8.4% 증가한 19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2.2% 차지



(수출액)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의 수요회복, 친환경자동차 및 고부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 증가하며 역대 최고금액 297억 달러 달성

- '14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252억 달러 달성 이후 8년 만에 최고액 297억 달러 달성
- * 반기별 자동차 수출액 경신: ('12上) 248 → ('14上) 252 → ('22下) 297
-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 상승,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비중 확대,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 증가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20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국내 브랜드 판매호조 및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2% 증가한 88억 달러

-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최대 실적 기록 중
-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28.6%에서 '22년 하반기 29.5%로 확대
-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은 순수전기차 46억 달러, 하이브리드 34억 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억 달러로 각각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15.5%, 11.6%, 2.5% 차지

(제조사 매출) 반도체 공급난 완화, 수요회복 등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국내 제조사의 매출이 확대됨

- (현대차 그룹) 현대와 기아는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22년 하반기 매출은 각각 27.3%, 32.6% 늘어난 76.2조원, 46.3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기타) 2022년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각각 9년과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KG모빌리티도 판매량 증가로 매출 확대

III. 시사점 및 전망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중국 및 유럽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반면 미국은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별 성장세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3년 4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 계획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확대할 전망
- 유럽은 보조금 축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기차 충전비용 상승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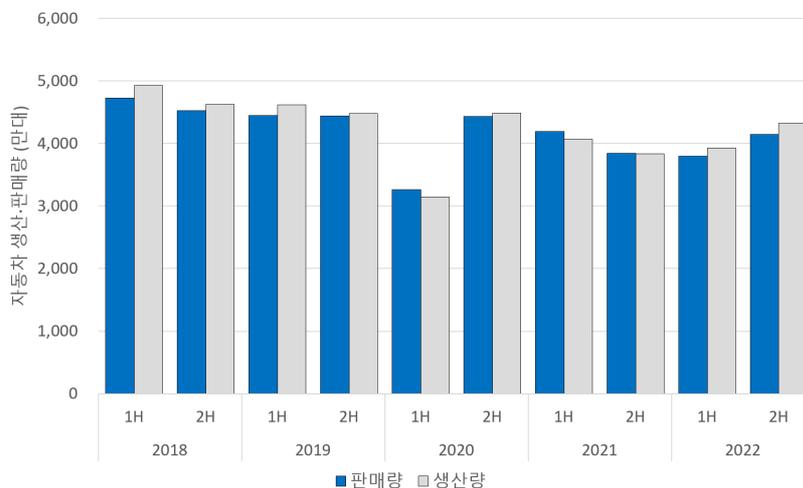
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 자동차 판매량

(생산·판매량)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4,322만대, 판매량은 4,145만대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12.8%, 7.8% 증가

- '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 전기 대비 10.1%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생산량인 4,480만대의 96.5% 수준까지 회복
- '22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8%, 전기 대비 9.2%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인 4,442만대의 93.3% 수준까지 회복
-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20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나 '22년 하반기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판매량 증가세 실현
- '22년 하반기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생산량·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으나 '23년 1분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완전한 해소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
- '23년 1월 혼다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일본 내에서 일부 Civic모델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
- 아우디는 '22년 연례보고서에서 '23년에도 전력반도체 등이 부족할 것이라 밝힘
- 스텔란티스는 '23년 1월 반도체 및 부품 부족으로 이탈리아 공장 일주일간 생산 중단
- '22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난 8,250만 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7,942만 대로 각각 팬데믹 이전인 '19년 생산·판매량의 90.7%, 89.3%까지 회복

전 세계 자동차 생산·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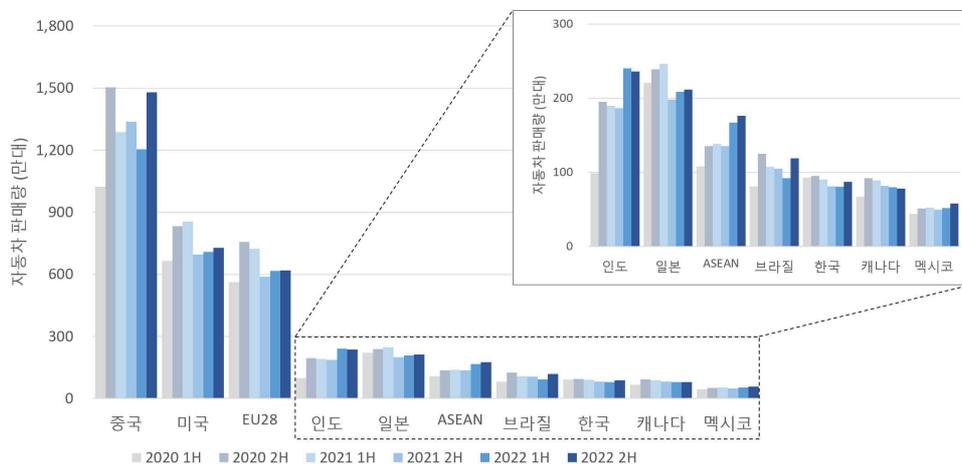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주요시장) '22년 하반기 중국, 인도, 아세안의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7%, 26.6%, 30.0%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미국과 EU28¹⁾의 판매량은 각각 4.8%, 5.3% 증가에 그침

- '22년 하반기 자동차 주요 5개 시장은 판매량 순으로 중국(1,480만대), 미국(729만대), EU28(620만대), 인도(236만대), 일본(211만대)
 - EU28 중 판매량 상위 3개 국가는 독일(155만대), 영국(95만대), 프랑스(95만대)
- '22년 하반기 중국, 인도, 아세안은 팬데믹 이전 '19년 하반기 판매량을 회복
 -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빠르게 회복하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 * 중국의 비중: ('21上) 30.7 → ('21下) 34.8 → ('22上) 31.7 → ('22下) 35.7
 - 판매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인도와 아세안의 비중은 각각 '21년 하반기 4.8%, 3.5%에서 '22년 하반기 5.7%, 4.2%로 확대
- 반면 자동차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28의 '22년 하반기 판매량은 '19년 하반기의 약 80% 수준
 - 한국 및 일본의 '22년 하반기 판매량은 '19년 하반기의 95.0%, 86.6% 수준으로 '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22년 연간 판매량은 중국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반면 미국과 EU28의 판매량은 각각 7.4%, 5.8% 감소
 - 상위 10개 시장 중 중국, 인도, 아세안, 멕시코 4곳을 제외한 시장의 '2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증가할 전망

시장별 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1) EU28: EU27개국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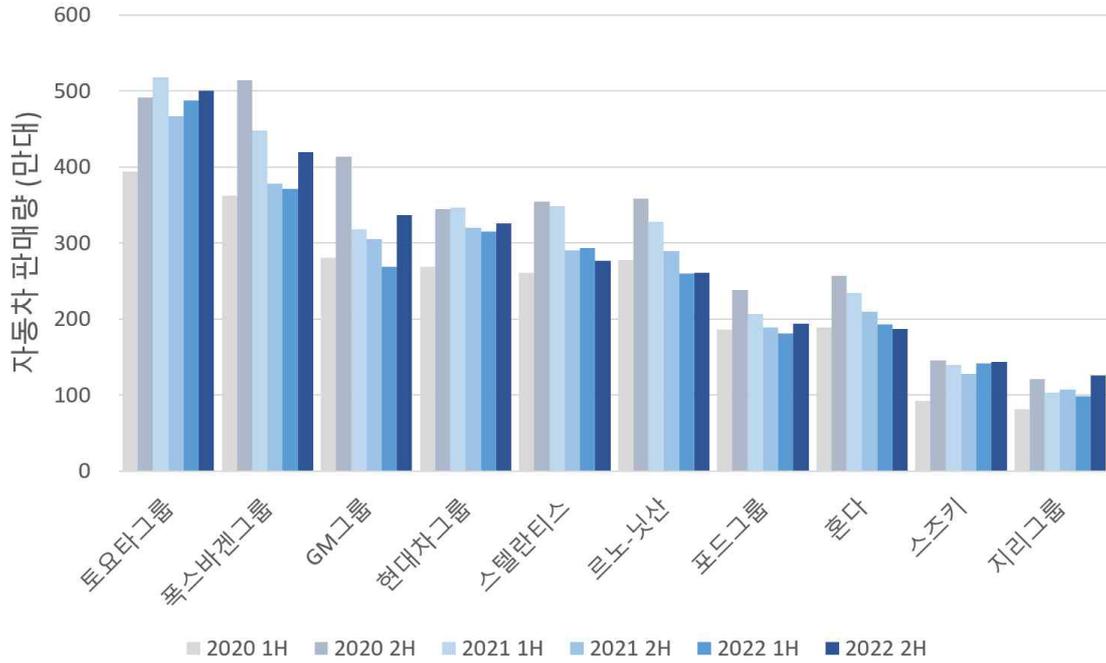
(제조사별 판매량) '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자동차 판매량은 토요타그룹(500만대), 폭스바겐그룹(420만대), GM그룹(337만대), 현대차그룹(326만대), 스텔란티스(277만대) 순

- '22년 상위 10개 제조사 중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기업은 토요타그룹(+7.2%), 폭스바겐그룹(+11.0%), GM그룹(10.5%), 현대차그룹(+2.0%), 포드그룹(+2.6%), 스즈키(+12.6%), 지리그룹(+17.8%)으로 총 7곳
- 반면, 스텔란티스, 르노-닛산, 혼다의 판매량은 공급난 이슈 등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4.5%, 9.8%, 11.1% 감소
- '22년 하반기 GM그룹은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며 글로벌 3위 달성
- '22년 하반기 판매량은 제조사별로 부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차이 발생
- 주요 제조사 중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의 90% 이상 회복한 업체는 토요타그룹(98.7%), 현대차그룹(91.6%), 스즈키(104.5%), 지리그룹(116.4%)이 있음
- 반면 르노-닛산의 '22년 하반기 판매량은 '19년 하반기 판매량의 65.6%에 불과하며 폭스바겐그룹, GM그룹, 스텔란티스, 포드그룹, 혼다는 각각 70~80% 수준
- * 폭스바겐그룹(77.9%), GM그룹(83.8%), 스텔란티스(74.6%), 포드그룹(77.6%), 혼다(72.8%)
- '22년 연간 토요타그룹, 스즈키, 지리그룹의 판매량은 각각 아세안, 인도, 중국 등에서의 판매호조로 전년 대비 0.3%, 6.7%, 6.5% 증가
- 상위 10개 제조사의 '22년 연간 판매량은 토요타그룹, 스즈키, 지리그룹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줄어든 제조사는 르노-닛산으로 15.6% 감소
- 현대차 그룹은 반도체 공급난에 비교적 잘 대응하며 '22년 판매량 3위 달성

(시장점유율) '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토요타그룹(12.1%), 폭스바겐그룹(10.1%), GM그룹(8.1%), 현대차그룹(7.9%), 스텔란티스(6.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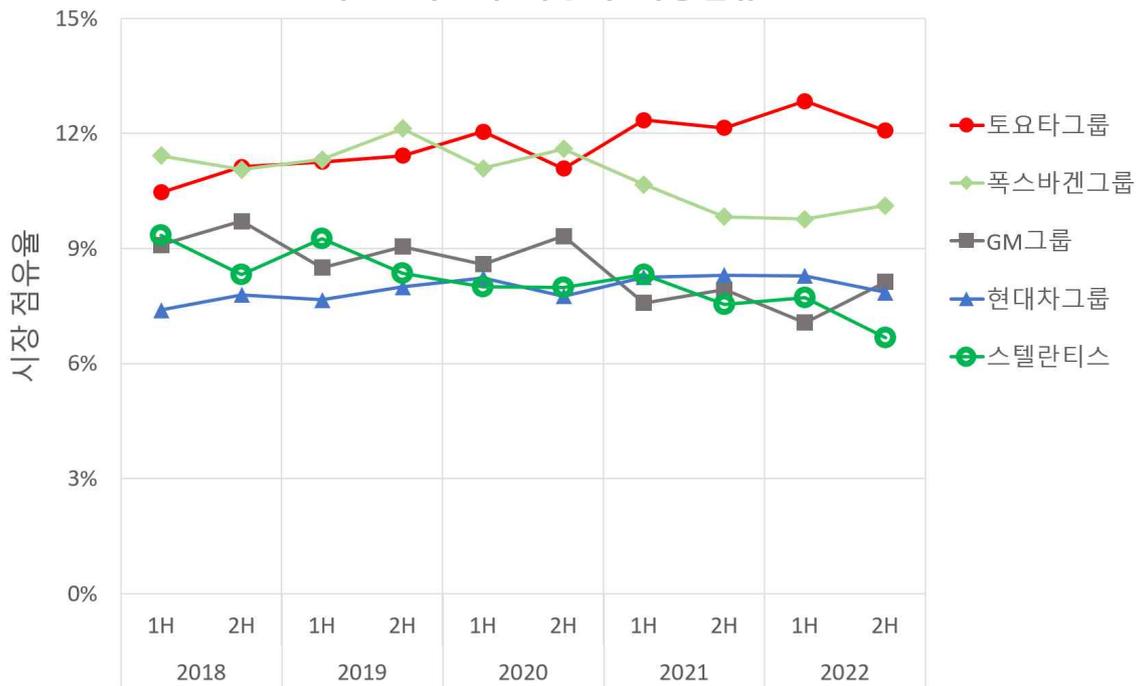
- '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44.9%를 차지
- 폭스바겐그룹과 GM그룹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며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0.3%p, 0.2%p 확대된 10.1%, 8.1%
- 반면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가 크지 않은 현대차 그룹과 판매량이 감소한 스텔란티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5%p, 0.9%p 감소한 7.9%, 6.7%
- 토요타그룹의 '22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12% 수준 유지

제조사별 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주요 제조사 자동차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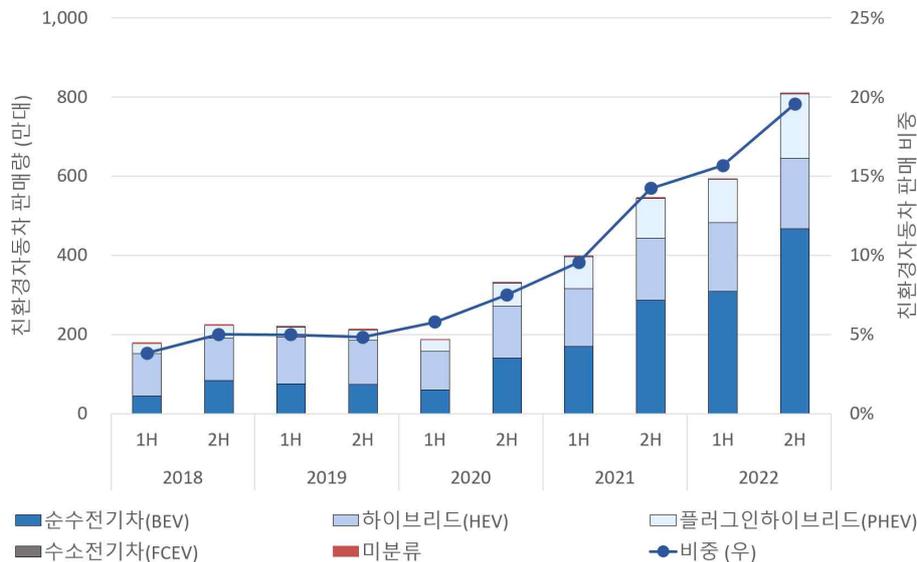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2.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판매량)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순수전기차(B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하는 친환경자동차의 2022년 하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8.2% 증가한 811만대

-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14.2%에서 '22년 하반기 19.6%로 5.3%p 확대
 - *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 ('21上) 9.5 → ('21下) 14.2 → ('22上) 15.7 → ('22下) 19.6
- '22년 하반기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순수전기차 467만대, 하이브리드 178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63만대, 수소전기차 0.7만대로 순수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
 -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20년 하반기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추월하였으며, '21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의 50%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
 -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 비율은 순수전기차(57.6%), 하이브리드(2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20.1%)
 - '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각각 62.8%, 63.1% 증가하였으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4.0% 증가에 그치면서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6.6%p 축소
- '22년 연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1,405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7.7%를 차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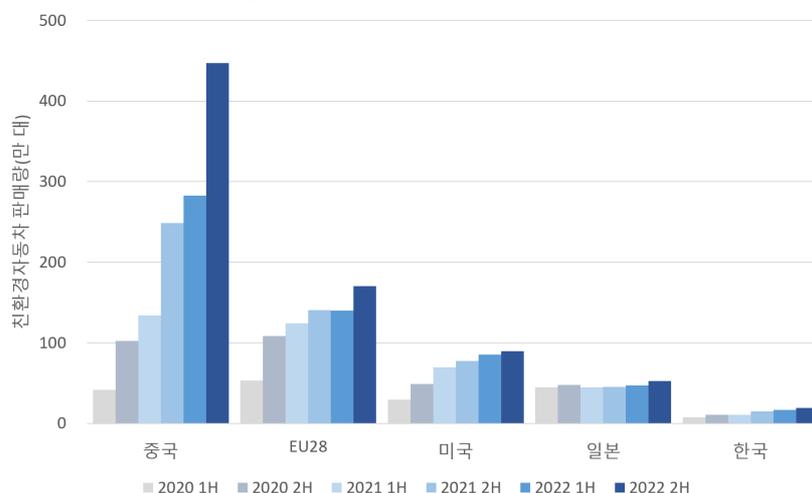
주) 미분류는 HEV, PHEV, BEV 모델이 모두 있는 차종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경우 (ex. 기아 NIRO)

자료: MarkLines

(주요시장)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55.2%로 중국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EU28과 미국의 비중은 21.0%, 11.1%

-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는 중국(447만대), EU28(170만대), 미국(90만대), 일본(53만대), 한국(19만대)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6.1%를 차지
- 전체 자동차 시장은 상위 5개 지역(중국, 미국, EU28, 인도, 일본)이 79.0%를 차지하는 반면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상위 5개 지역(중국, EU28, 미국, 일본, 한국)이 전 세계 판매량의 96.1%를 차지
- EU28 중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상위 3개 국가는 독일(56만대), 영국(30만대), 프랑스(27만대)
- '22년 하반기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9.7% 증가하며 주요 5개 시장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일본은 15.2% 증가
- 중국은 '23년부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영향 등으로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크게 증가
- '22년 하반기 EU28, 미국, 한국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1.1%, 16.0%, 28.4% 증가
- 미국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12.3%가 친환경자동차로 주요시장 중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이 가장 낮은 시장
- * '22년 하반기 시장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 중국(30.2%), EU28(27.5%), 일본(24.8%), 한국(22.2%), 미국(12.3%)
- '22년 연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중국(730만대), EU28(310만대), 미국(175만대), 일본(100만대), 한국(36만대)

시장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제조사별 판매량) 2022년 하반기 상위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BYD(122만대), 토요타그룹(109만대), 테슬라(87만대), GM그룹(49만대), 폭스바겐그룹(48만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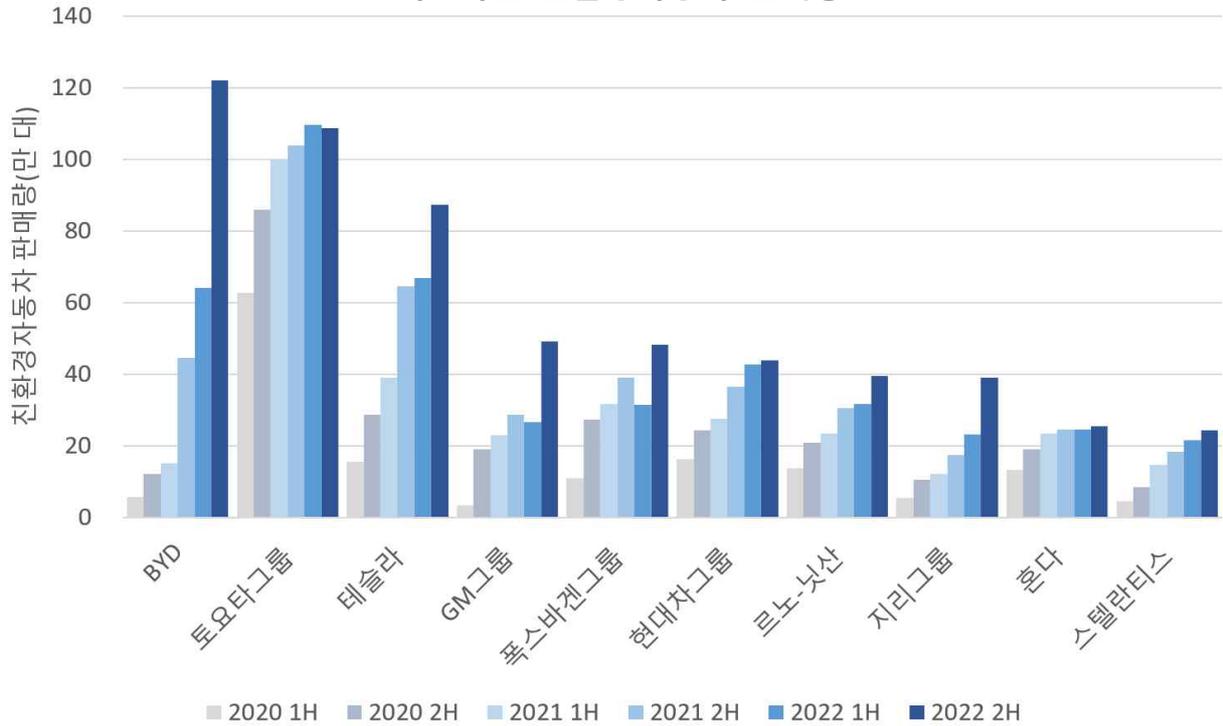
- 중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BYD의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74.2% 증가한 122만대로 토요타를 넘어 판매량 1위 달성
- '22년 하반기 BYD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99.2%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일본,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토요타의 친환경자동차 판매의 95.4%는 하이브리드로 순수전기차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22년 하반기 토요타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에 그침
-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혼다의 판매량도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에 그침
- 중국에서의 판매량 비중이 높은 완성차 제조사가 대체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 '22년 하반기 GM은 상하이차, 우링과의 합작사인 SGMW의 흥광미니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70.8% 증가
- 중국 비중이 64.1%인 지리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23.3% 증가
-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높은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5.2% 증가한 87만대
- 그 외 주요 제조사의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스텔란티스(32.2%), 르노-닛산(28.8%), 폭스바겐그룹(23.6%), 현대차그룹(19.8%)
- '22년 연간 BYD는 전년 대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조사로 212.4% 증가하였으며 뒤를 이어 지리그룹이 109.9%, 테슬라가 48.7% 증가

(시장점유율) '22년 하반기 BYD의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6.9%p 증가한 15.0%로 1위를 달성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중심의 판매를 하는 토요타그룹의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5.6%p 줄어든 13.4%로 지속적인 하락세

- '22년 하반기 상위 5개 제조사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점유율은 51.2%로 전체 자동차 상위5개 제조사의 점유율(44.9%) 대비 높음
- BYD의 가파른 성장세 등으로 테슬라, 폭스바겐그룹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점유율은 각각 1.0%p, 1.2%p 감소하였으나 GM그룹의 점유율은 중국에서의 판매호조 등으로 0.8%p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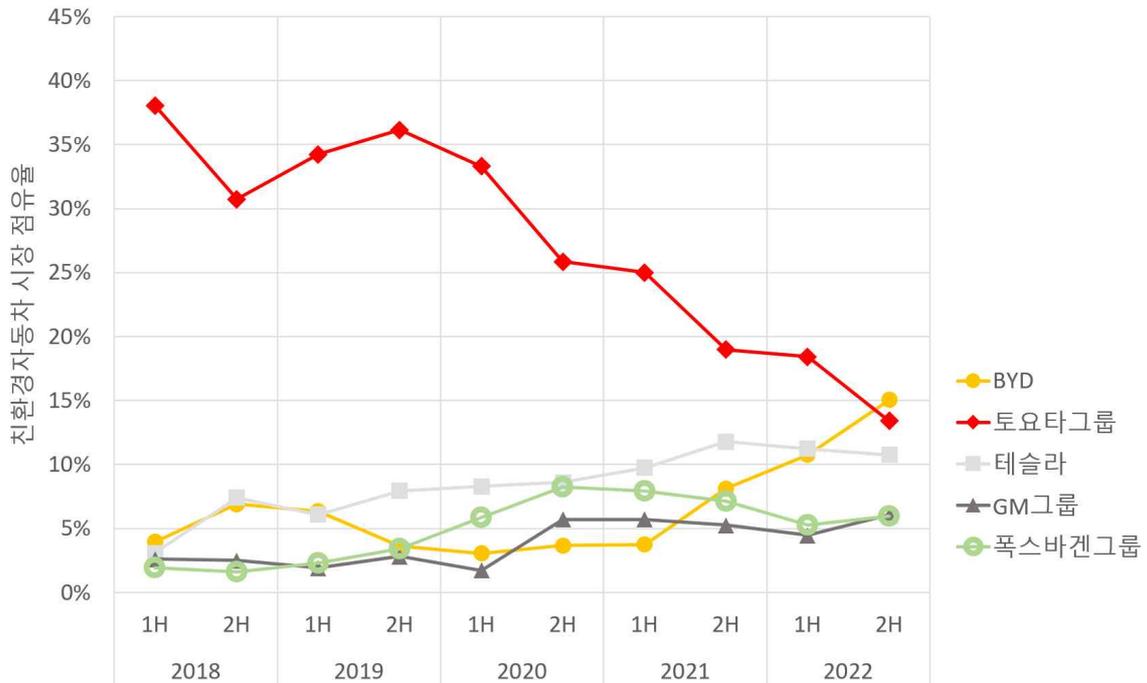


제조사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주요 제조사 친환경자동차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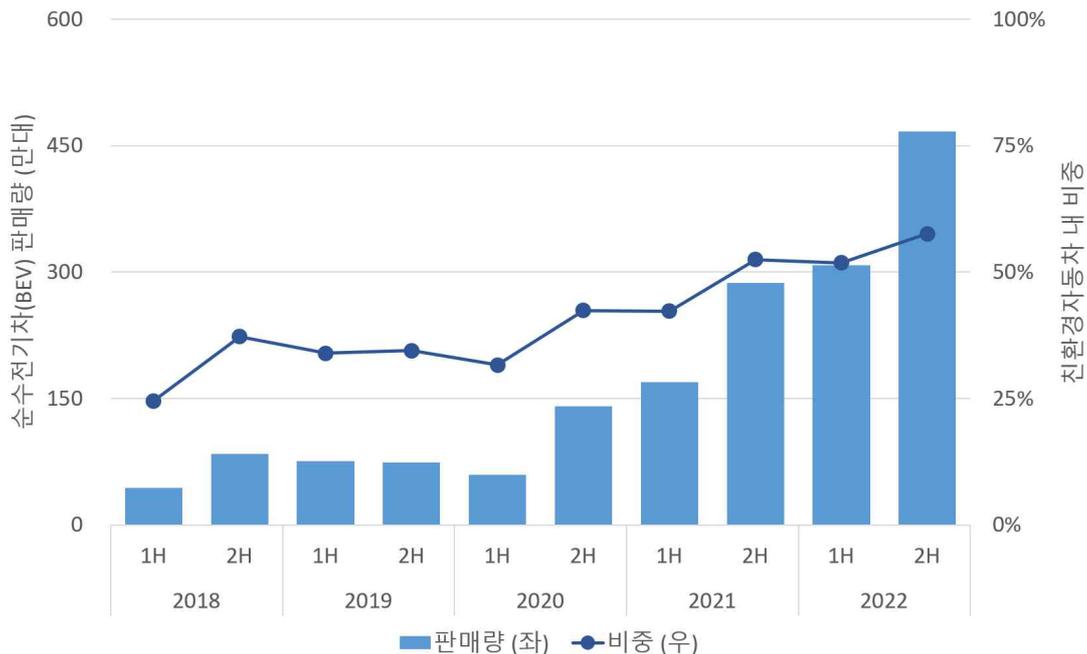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3. 순수전기차(BEV) 판매량

(순수전기차 판매량) 20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2.8% 증가한 467만대

- 순수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로 '21년 하반기 52.4%에서 '22년 하반기 57.6%로 5.2%p 확대
- * 친환경자동차 내 순수전기차 판매 비중(%): ('21상) 42.2 → ('21하) 52.4 → ('22상) 51.8 → ('22하) 57.6
-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21년 하반기 7.5%에서 '22년 하반기 11.3%로 3.8%p 확대
- '22년 연간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775만대
-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48.1%에서 55.1%로 증가
-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5.7%에서 '22년 9.8%로 증가

순수전기차(B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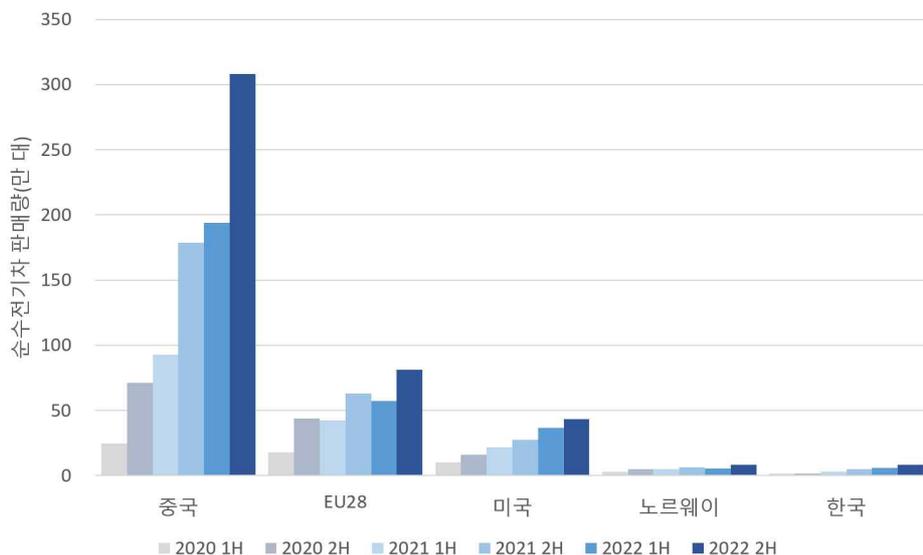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주요시장)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순수전기차 판매량 중 중국의 비중은 66.0%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EU28, 미국은 뒤를 이어 각각 17.4%, 9.3%를 차지

- '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중국(308만대), EU28(81만대), 미국(44만대), 노르웨이(8만대), 한국(8만대)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6.3%를 차지
- '22년 하반기 중국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23년 보조금 폐지 영향 등으로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순수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1년 하반기 54.8%에서 '22년 하반기 66.0%까지 확대
- 반면, EU28의 비중은 21.9%에서 17.4%로 축소되었으며 미국의 순수전기차 시장 비중은 '21년 하반기 9.6%에서 '22년 하반기 9.3%로 비슷한 수준 유지
- EU28 중 순수전기차 판매량 상위 3개 국가는 독일(29만대), 영국(16만대), 프랑스(11만대)
- '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 상위 5개 시장 중 판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장은 중국으로 전년동기 대비 72.5% 증가
- 노르웨이는 상위 5개 시장 중 순수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은 시장
- * '22년 하반기 시장별 순수전기차 판매비중: 노르웨이(67.2%), 중국(20.8%), EU28(13.1%), 한국(9.5%), 미국(6.0%)
- '22년 하반기 EU28, 미국, 한국의 순수전기차의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29.4%, 58.5%, 60.8%

시장별 순수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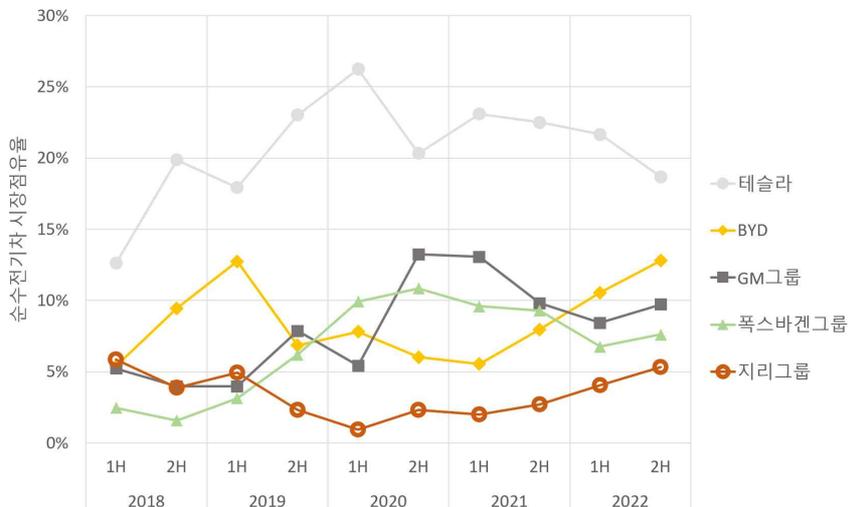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시장점유율) 순수전기차 판매량 상위 5개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테슬라(18.7%), BYD(12.8%), GM그룹(9.7%), 폭스바겐그룹(7.6%), 지리그룹(5.3%) 순

- '22년 하반기 테슬라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87만대로 글로벌 1위를 유지하였으나 BYD 및 지리그룹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 테슬라의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3.8%p 감소한 18.7%
- 60만대를 판매한 BYD와 25만대를 판매한 지리그룹의 순수전기차 시장점유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4.8%p, 2.6%p 확대된 12.8%, 5.3%
- BYD와 지리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1.3%, 221.4% 증가하며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나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율은 35.2%로 점유율 축소
- BYD와 지리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98.4%, 72.3%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파른 순수전기차 성장과 함께 시장점유율 확대
- GM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1.3% 증가한 45만대로 점유율은 '21년 9.8%, '22년 9.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GM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대부분 상하이차, 우링과의 합작사인 SGMW에서 발생하여 중국의 비중이 높음(89.6%)
- 폭스바겐그룹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한 36만대로 점유율은 '21년 9.3%에서 '22년 7.6%로 1.7%p 감소

주요 제조사 순수전기차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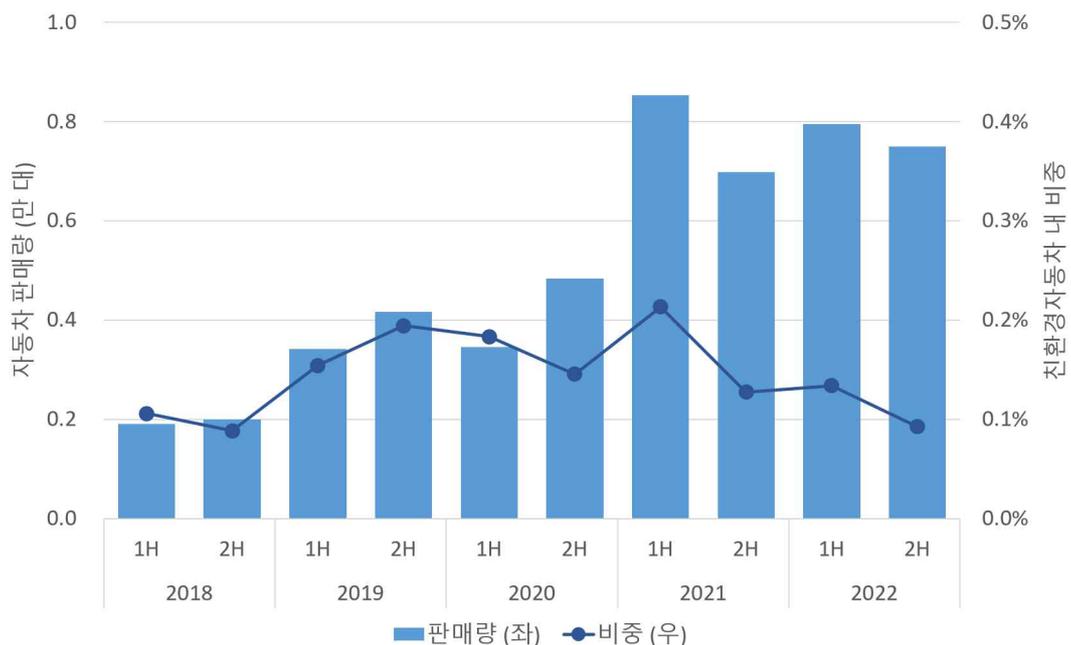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4. 수소전기차(FCEV) 판매량

(수소전기차 판매량) 2022년 하반기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7,499대

-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수소전기차의 비중은 0.09%로 매우 미미한 수준
-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0.13%에서 순수전기차 등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며 '22년 하반기 0.09%로 축소
- * 친환경자동차 내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 ('21상) 0.21 → ('21하) 0.13 → ('22상) 0.13 → ('22하) 0.09
- '22년 연간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1.5만대
- '22년 수소전기차는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0.16%에서 0.11%로 축소
- '22년 연간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1.5만대로 '18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41.1%씩 증가하는 등 성장 중이기는 하나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 연도별 수소전기차 판매량(만대): ('18) 0.4 → ('19) 0.8 → ('20) 0.8 → ('21) 1.6 → ('22) 1.5

수소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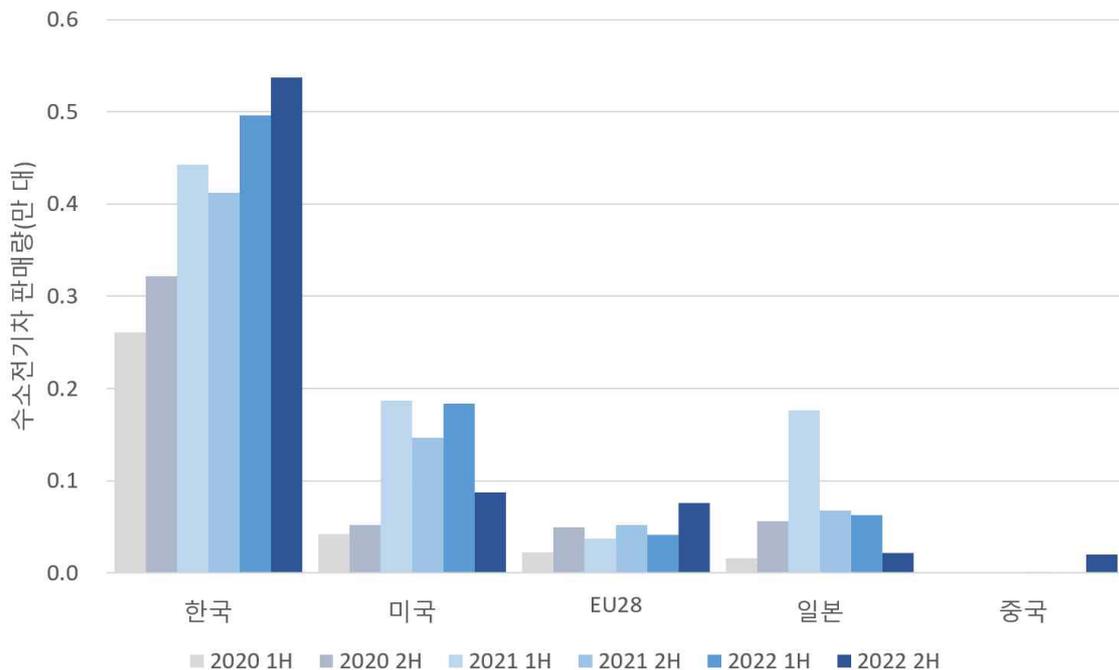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주요시장) 2022년 하반기 한국은 전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의 71.7%를 차지하며 수소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국과 EU28에서 각각 11.7%, 10.1%가 판매됨

- '22년 하반기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한국(5,375대), 미국(874대), EU28(761대), 일본(220대), 중국(201대)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9.1%를 차지
- EU28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대부분 독일(544대)과 프랑스(180대)가 차지
- '22년 하반기 한국과 EU28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30.3%, 47.2%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판매량은 각각 40.5%, 67.6% 감소
-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59.2%에서 '22년 하반기 71.7%로 확대하였으며 EU28의 비중도 7.4%에서 10.1%로 확대
- * 수소전기차 한국 비중(%): ('21上) 51.9 → ('21下) 59.2 → ('22上) 62.4 → ('22下) 71.7
- 반면 미국이 수소전기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21.1%에서 '22년 하반기 11.7%로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비중도 9.7%에서 2.9%로 축소

시장별 수소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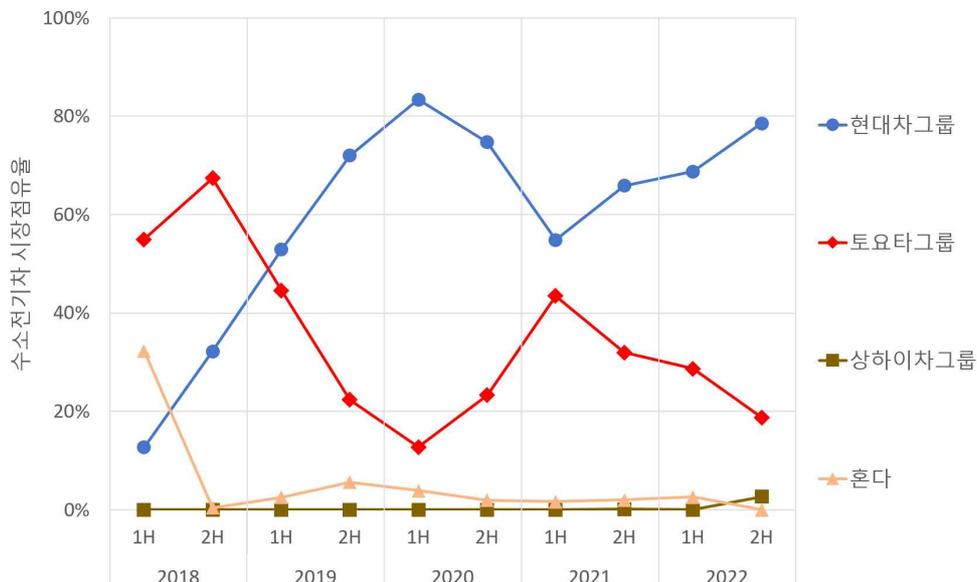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시장점유율) 수소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현대차그룹(78.5%), 토요타그룹(18.8%), 상하이차그룹(2.7%)

- 수소전기차는 시장 형성단계로 판매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넥쏘와 일렉시티, 토요타의 미라이, 상하이차그룹의 EUNIQ7로 제한되어 있음
- 혼다는 수소전기차 클래리티를 '21년 단종시켰으며 '24년 차세대 수소전기차 발표 예정
-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1년 하반기 65.9%에서 '22년 하반기 78.5%로 12.6%p 확대된 반면 토요타그룹의 수소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1년 하반기 32.0%에서 '22년 하반기 18.8%로 13.2%p 축소
- 수소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그룹과 토요타그룹 양강구도에서 한국의 판매량 비중이 높아지며 현대차그룹의 점유율이 확대됨
-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판매량 중 한국의 비중은 91.3%로 대부분을 차지
- 미국 수소전기차 시장은 토요타그룹이 84.3%, 현대차그룹이 15.7%를 차지
- EU28 수소전기차 시장은 토요타그룹이 45.8%, 현대차그룹이 41.3%를 차지
- 상하이차그룹이 출시한 수소전기차 EUNIQ7은 중국에서 201대 판매

주요 제조사 수소전기차 시장점유율



자료: MarkLines

II.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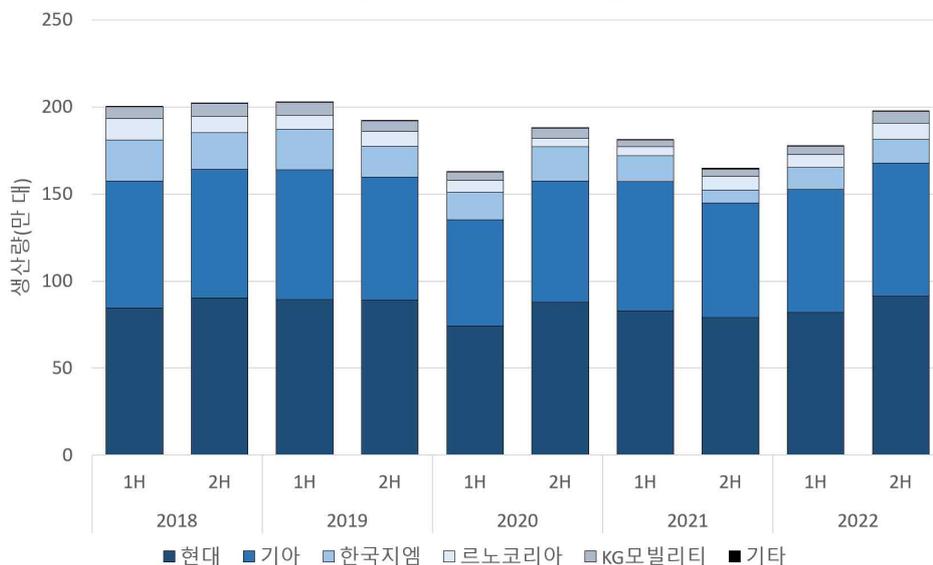
1. 국내 생산 및 판매

(국내 생산량) 20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 증가한 198만 대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전기대비 11.2% 증가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생산량인 192만대 상회
- 현대차그룹의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5.8% 확대된 167만대
- '22년 하반기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생산량은 각각 80만대, 76만대로 국내 자동차 생산의 46.2%, 38.7%를 차지
- '22년 하반기 한국GM, KG모빌리티(쌍용), 르노코리아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13만대, 9만대, 7만대
-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의 '22년 하반기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했던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80.9%, 56.9%, 20.7% 증가
- '22년 연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76만대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19년 395만대의 95% 수준까지 회복

* 연도별 국내 자동차 생산량(만대): ('18) 403 → ('19) 395 → ('20) 351 → ('21) 346 → ('22) 376

국내 자동차 생산량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국내 판매량)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87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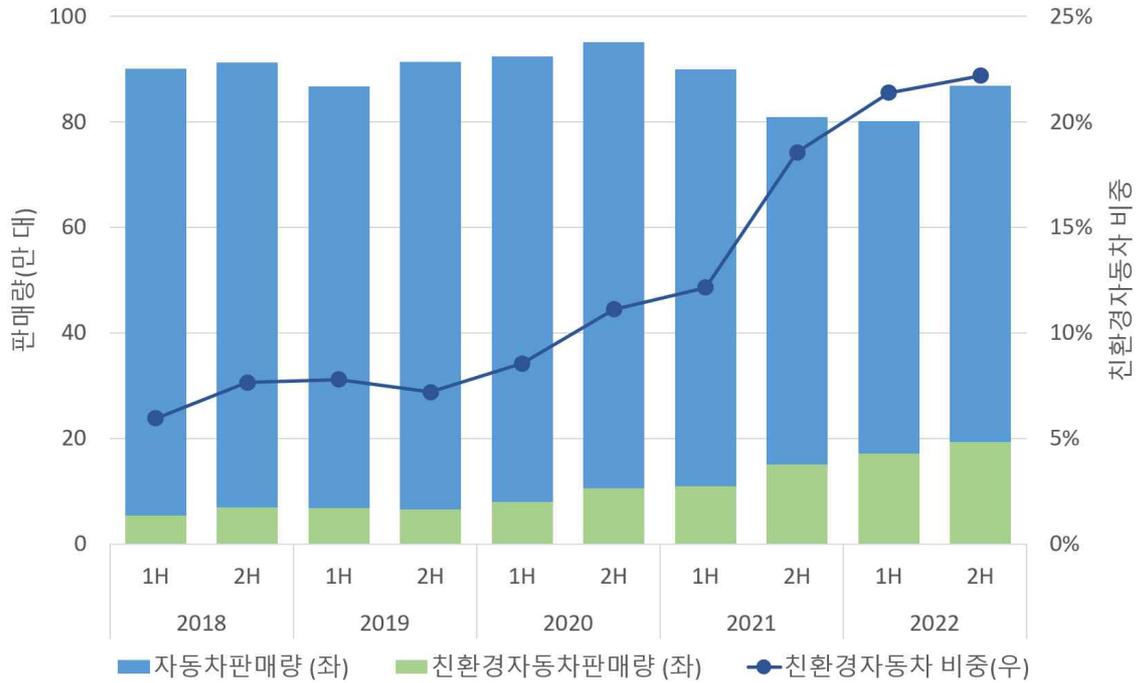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생산지연 해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전기대비 8.5% 늘어나며 증가 추세
-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91만대)의 95% 수준까지 회복
-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판매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2년 연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상반기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출고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167만대
- * 연도별 국내 자동차 판매량(만대): ('18) 178 → ('19) 178 → ('20) 187 → ('21) 171 → ('22) 167
- '22.12.31 종료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는 소비 진작 및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감안하여 '23.6.30까지 6개월 연장

(친환경자동차 국내 판매량)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8.4% 증가한 19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2.2% 차지

- 순수전기차 판매호조 등 친환경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18.5%에서 '22년 하반기 22.2%로 3.6%p 확대
- * 친환경자동차 비중(%): ('21上) 12.2 → ('21下) 18.5 → ('22上) 21.4 → ('22下) 22.2
- '22년 하반기 국내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량은 하이브리드 10만대, 순수전기차 8만대, 수소전기차 0.5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0.5만대
- '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0.8% 증가한 반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5.3% 늘어나며 순수전기차 비중이 확대
-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계속 확대할 전망
- *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중 순수전기차 비중(%): ('21上) 25.6 → ('21下) 34.1 → ('22上) 35.6 → ('22下) 42.7
- '22년 연간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3% 증가한 36만대
-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비중)은 하이브리드 20만대(54.7%), 순수전기차 14만대(39.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만대(3.1%), 수소전기차 1.0만대(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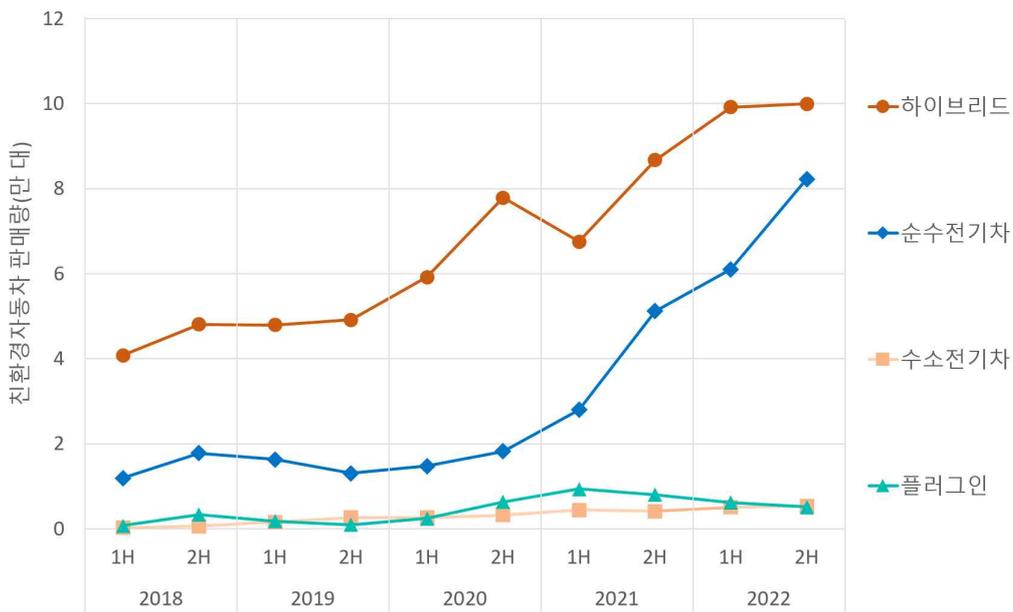


한국 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한국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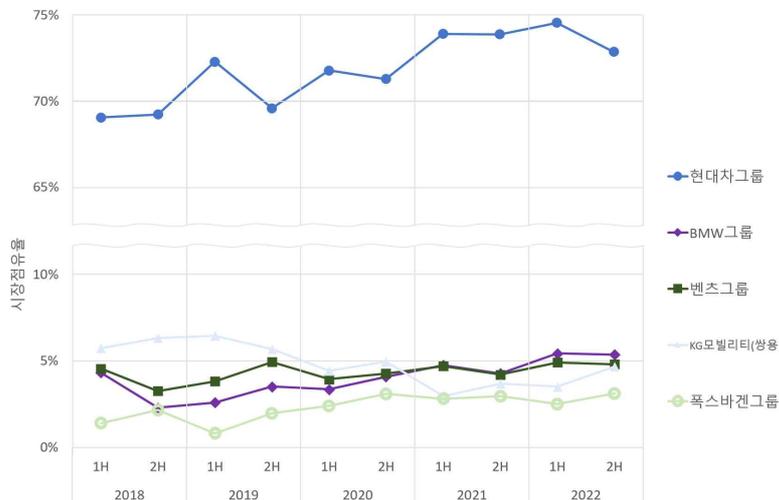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한국 시장점유율) '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그룹(72.9%), BMW그룹(5.4%), 메르세데스-벤츠그룹(4.8%), KG모빌리티(4.7%), 폭스바겐그룹(3.1%)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

- 현대차그룹, BMW그룹, 메르세데스-벤츠그룹, KG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 5개 제조사의 점유율은 신차 출시 등으로 '19년 하반기 85.7%에서 '22년 하반기 90.8%로 확대
-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한 63만대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1.0%p 축소되었으나,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대비로는 3.3%p 확대된 72.9%
 -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점유율은 각각 33.0%, 32.1%, 7.8%
 - 제네시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9년 하반기 2.7%에서 '22년 하반기 7.8%로 확대
 - 반면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점유율은 '19년 하반기 36.5%에서 '22년 하반기 33.0%로 축소되었으며 기아의 비중은 동기간 30.4%에서 32.1%로 증가
- KG모빌리티의 '22년 하반기 국내 판매량은 신차 토레스 출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2% 증가한 4만대로 점유율은 1.0%p 확대된 4.7% 차지
- BMW그룹,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폭스바겐그룹의 '22년 하반기 점유율은 각각 5.4%, 4.8%, 3.1%로 전년동기 대비 1.1%p, 0.6%p, 0.2%p 증가
- 국내 제조사인 르노코리아 및 한국GM의 '22년 하반기 국내 판매량은 각각 2.6만대, 2만대로 3.0%, 2.3% 점유율 차지
 -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18.2% 감소하며 점유율은 1.0%p 축소하였으며 한국GM의 점유율 또한 판매량이 6.0% 줄어들며 0.3%p 축소

한국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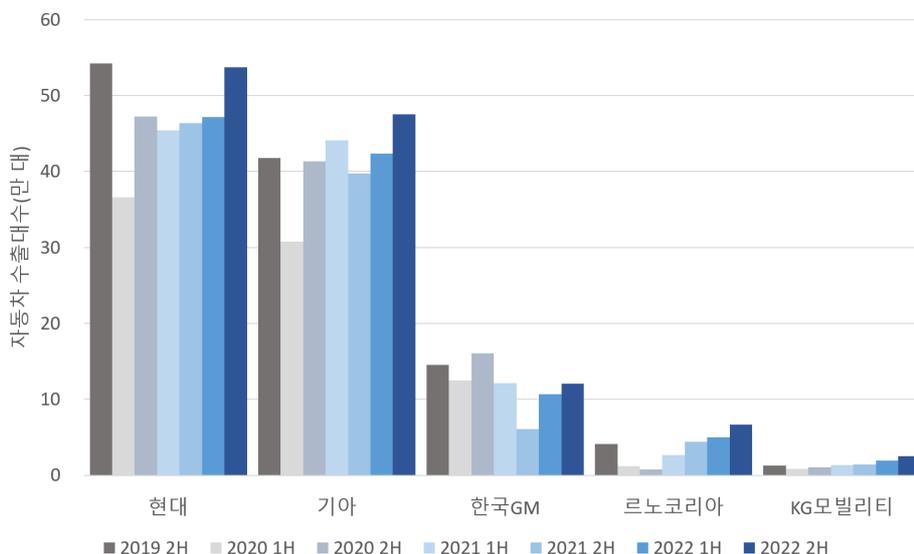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2. 자동차 수출

(수출대수) 2022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수출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한 123만 대

- '22년 하반기 국내 제조사별 수출 대수는 현대(54만대), 기아(48만대), 한국GM(12만대), 르노코리아(7만대), KG모빌리티(3만대), 타타대우(0.1만대)로 총 123만 대 수출
- 국내 제조사의 수출량은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기저효과로 크게 증가
 -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15.8%, 19.5% 증가
 - 한국GM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 및 트레일블레이저 등 수출 호조로 수출량 97.2% 증가하였으나 국내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 수출량 회복이 가장 느림
 - 르노코리아의 수출량은 XM3, QM3 등 인기차종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전년동기 대비 50.5% 증가
 - KG모빌리티의 렉스턴스포츠, 코란도 등 수출량 증가 등 전년동기 대비 79.7% 증가
- 한국GM의 '22년 하반기 수출량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15만대의 83.0%수준에 불과한 반면 다른 국내 제조사는 수출량 회복
- * 제조사별 수출대수('19下→'22下, 만대): 현대(54→54), 기아(42→48), 한국GM(15→12), 르노코리아(4→7), KG모빌리티(1→3)
- '22년 연간 한국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230만대로 팬데믹 이전인 '19년 240만대의 95.8%까지 회복

국내 제조사별 수출 대수



자료: MarkLines



(수출액)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의 수요회복, 친환경자동차 및 고부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 증가하며 역대 최고금액 297억 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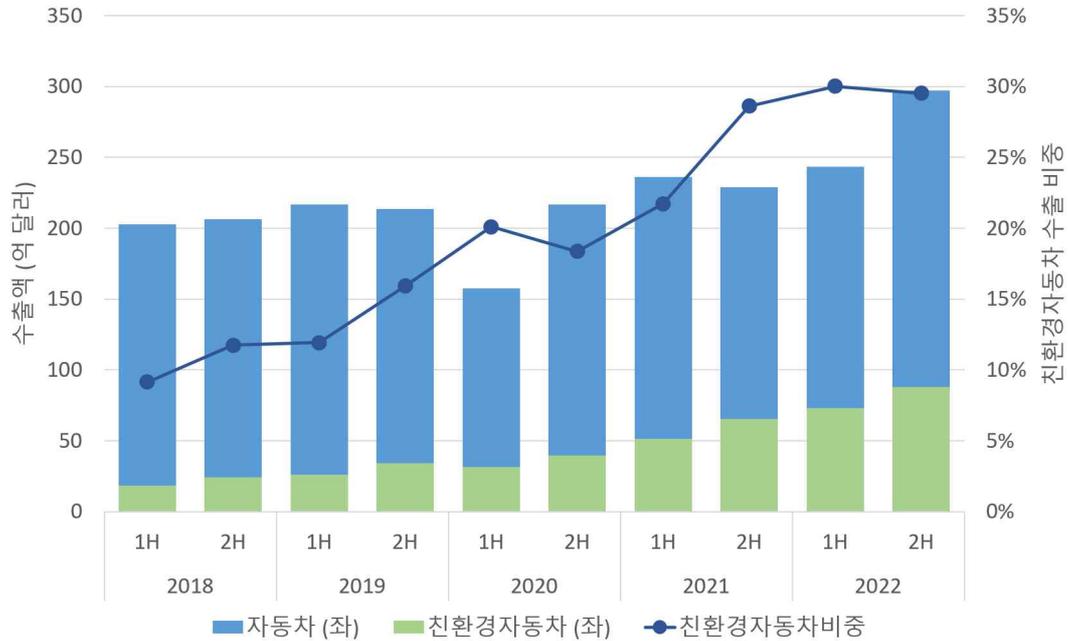
- '14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252억 달러 달성 이후 8년 만에 최고액 297억 달러 달성
 - * 반기별 자동차 수출액 경신: ('12上) 248 → ('14上) 252 → ('22下) 297
-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 상승,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비중 확대,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 증가
 - '22년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는 전년 대비 4.4% 상승한 21,253달러
 -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출액 비중은 '22년 하반기 29.5%로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
 - * '22년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 평균단가(달러, 전년 대비): 하이브리드 22,258(△3.3%),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8,826(△3.7%), 순수전기차 36,075(+2.0%)
 - '22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액의 42.7%를 차지한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
- '22년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541억 달러로 '14년 484억 달러 이후 최대 실적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20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국내 브랜드 판매호조 및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2% 증가한 88억 달러

-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최대 실적 기록 중
-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하반기 28.6%에서 '22년 하반기 29.5%로 확대
- '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은 순수전기차 46억 달러, 하이브리드 34억 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억 달러로 각각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15.5%, 11.6%, 2.5% 차지
 - '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수출액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37.0%, 41.4% 증가하였으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7% 감소
 - '22년 하반기 순수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0.8%p, 0.9%p 확대된 반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비중은 0.8%p 축소
- '22년 연간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한 16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25.1%에서 '22년 29.7%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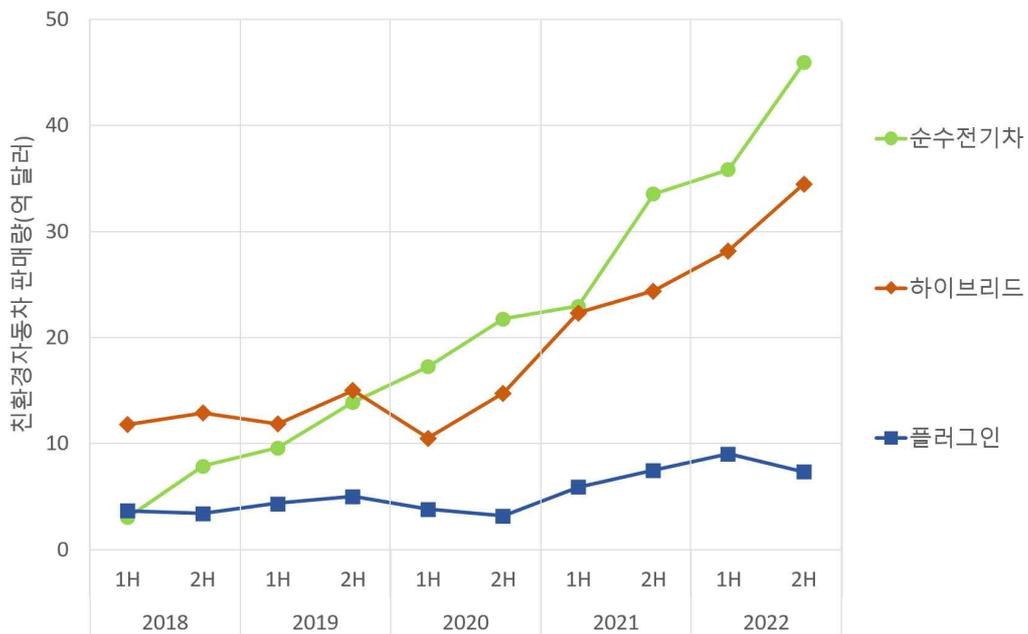


한국 자동차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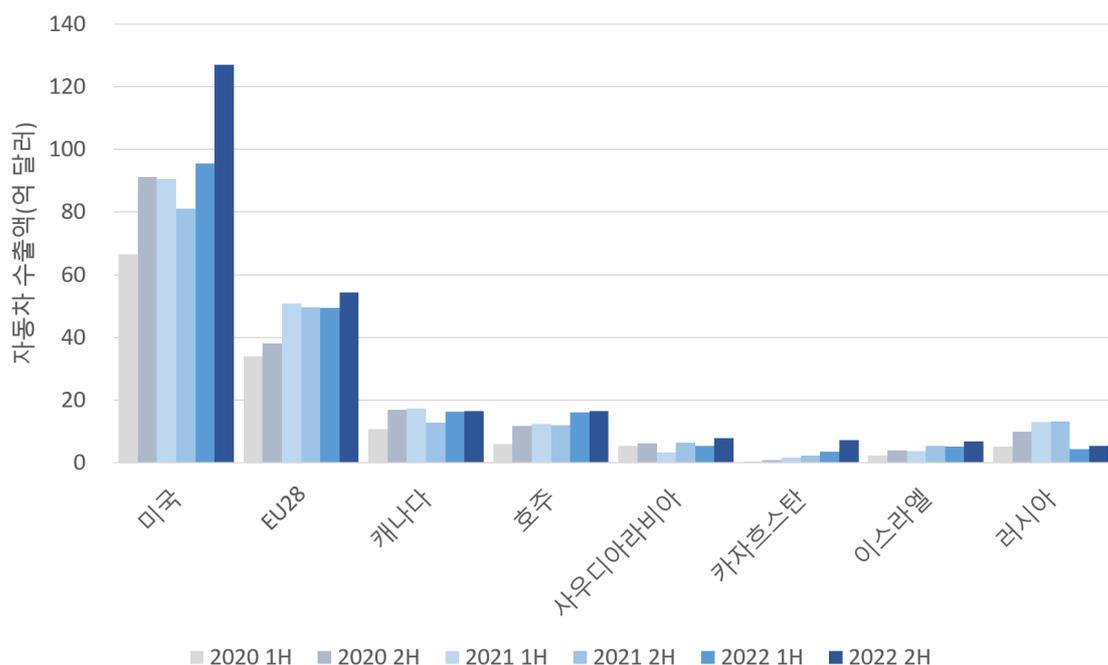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주요 수출대상국) 2022년 하반기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대상국은 미국(127억 달러), EU28(54억 달러), 캐나다(17억 달러), 호주(1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8억 달러)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2년 하반기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한 127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7.2%p 확대된 42.7%
- '22년 하반기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수요회복 및 한국 업체 자동차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국 수출액 증가 주도
- '22년 하반기 대 EU28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에 그쳐 EU28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3.5%p 축소된 18.3%
- '22년 하반기 한국 자동차 수출액에서 각각 5.6%, 5.5%, 2.6%를 차지하는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8.9%, 37.5%, 20.2% 증가
- '21년 하반기 13.3억 달러에 달하던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제재 영향으로 '22년 하반기 5.4억 달러로 축소
- '22년 하반기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액 중 대부분은 중고차로 대 러시아 승용차(HS8703) 수출액 4.9억 달러 중 중고차의 비중은 98.7%

한국 자동차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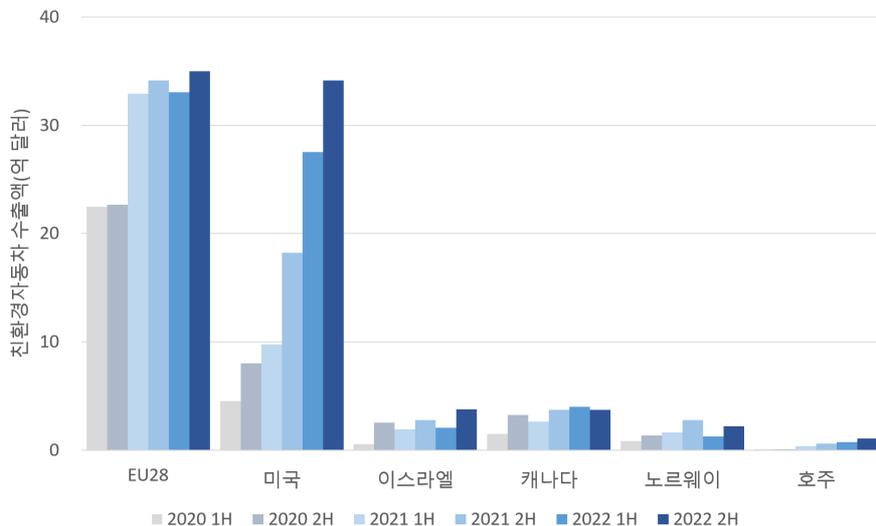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친환경자동차 수출대상국) 2022년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주요 수출대상국은 EU28(35억 달러), 미국(34억 달러), 이스라엘(4억 달러), 캐나다(4억 달러), 노르웨이(2억 달러)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2년 하반기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대 미국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7.2% 증가한 34억 달러
- '22년 하반기 대 미국 순수전기차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4.0% 증가하였으나 '22년 8월부터 시행된 IRA영향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은 6.3%에 그침
 - * 대 미국 순수전기차 수출액(억 달러): ('21상) 2.0 → ('21하) 5.4 → ('22상) 13.3 → ('22하) 14.1
- 반면 '22년 하반기 대 미국 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7.1%증가, 전기 대비로는 84.8% 증가하며 순수전기차 수출액 추월
 - * 대 미국 하이브리드 수출액(억 달러): ('21상) 7.0 → ('21하) 9.6 → ('22상) 8.7 → ('22하) 16.1
- '22년 12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드언스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상업용 판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순수전기차 수출액은 증가할 전망
- '22년 하반기 대 EU28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4%로 증가세 둔화
 - 대 EU28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21년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증가세 둔화
 - '22년 하반기 대 EU28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액은 순수전기차 20억 달러, 하이브리드 13억 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억 달러 순

한국 친환경자동차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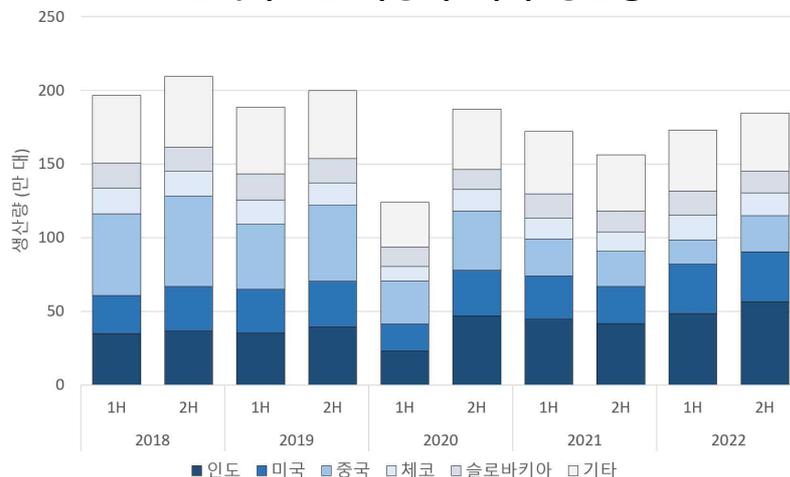
3. 해외 생산 및 판매

가. 현대차 그룹

(해외 생산량) 2022년 하반기 국내 제조사의 해외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한 185만 대

-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인도(56만대), 미국(34만대), 중국(24만대), 체코(16만대), 슬로바키아(15만대), 그 외(40만대) 순
- '22년 하반기 인도와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국가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35.7%, 34.6% 증가
- 반면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중국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하긴 하였으나 중국 내 판매 부진 등 중국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음
- * 현대차 글로벌 생산량 중 중국 비중(%): (19下) 14.3 → (20下) 11.7 → (21下) 7.9 → (22下) 6.9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기에 12만대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던 러시아에서의 생산 중단은 '22년 하반기에도 지속
- '22년 하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은 각각 112만대, 72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10.8%, 31.8% 증가
- '22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생산량 중 해외생산량은 52.4%를 차지
- * 현대차 해외생산량 비중(%): (19下) 55.6 → (20下) 54.3 → (21下) 51.9 → (22下) 52.4
- '22년 현대차그룹의 연간 자동차 해외 생산량은 357만대로 '19년 대비 92.1%까지 회복

현대차그룹 자동차 해외 생산량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판매량)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326만대로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 355만대의 91.6% 수준까지 회복

- (전 세계)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188만대이며 기아의 판매량은 1.8% 증가한 137만대
- '22년 하반기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11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6.4% 성장
- '22년 연간 현대차그룹은 640만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판매량 3위 달성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9.8% 증가한 44만대로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5.4% 점유

-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종류별 비중은 하이브리드 43.5%, 순수전기차 38.8%,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4.8%
-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하반기 13.5%로 전년동기 대비 2%p 확대
- 그러나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자동차 판매 둔화 등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 대비 0.1%p 축소

현대차그룹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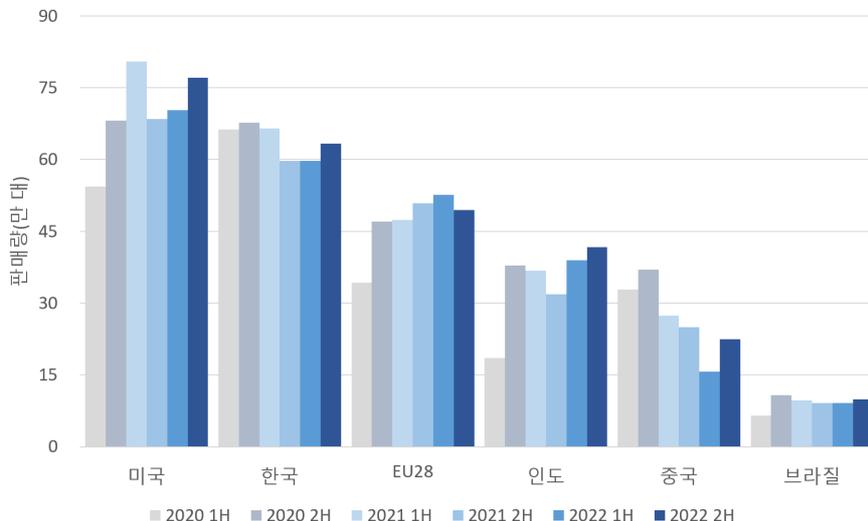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주요시장)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은 미국(77만 대), 한국(63만 대), EU28(49만 대), 인도(42만 대), 중국(22만 대), 브라질(10만 대) 순으로 높은 판매량 기록

- '22년 하반기 주요시장인 미국에서의 현대차그룹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한 77만 대로 미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 * 현대차그룹 미국 시장점유율(%): (19下) 7.6 → (20下) 8.2 → (21下) 9.8 → (22下) 10.6
 - 그러나, IRA 등의 영향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기대비 31.9% 줄어들며 순수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2년 상반기 9.4%에서 '22년 하반기 5.4%로 축소
 - '22년 하반기 EU28 시장은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며 현대차그룹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
- '22년 하반기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자동차 판매량은 기아의 소형SUV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9% 증가하며 17.7%의 시장점유율 차지
- '22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동기 대비 10.2%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점유율도 전년동기 대비 0.4%p 줄어든 1.5%
 - * 현대차그룹 중국 시장점유율(%): (19下) 4.0 → (20下) 2.5 → (21下) 1.9 → (22下) 1.5
- '22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4% 수준으로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10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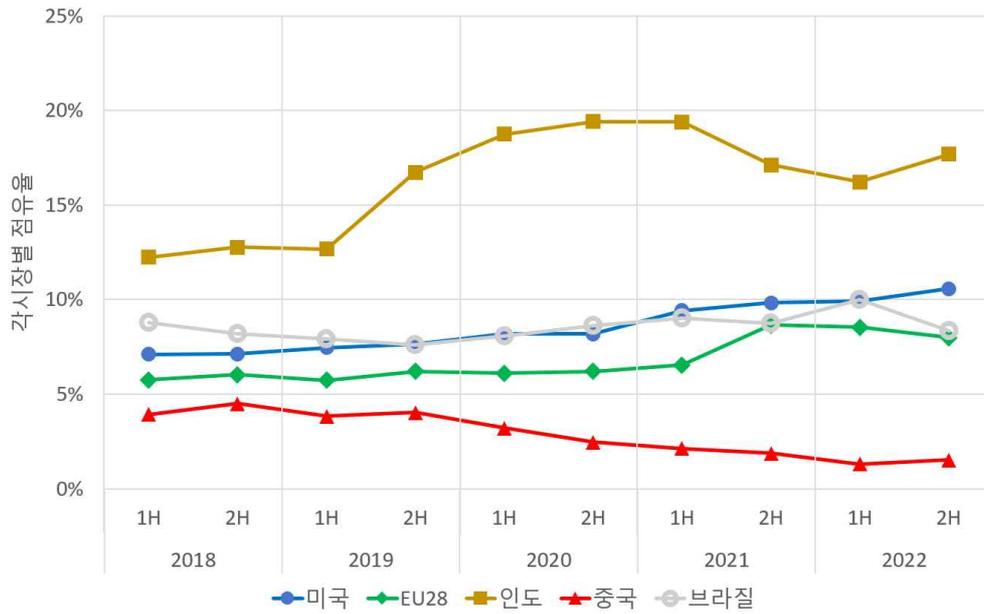
주요시장별 현대차그룹 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현대차그룹 주요시장별 점유율



자료: MarkLines

나. KG모빌리티

(판매량) '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0.2% 증가한 5.4만대로 팬데믹 이전인 '19년 하반기 판매량 6.4만대의 85.4% 수준까지 회복

- (해외 판매량) '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해외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한 1.4만 대
- '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해외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
- (주요시장) '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한국(4만대) 외 주요시장은 EU28(0.7만대), 칠레(0.3만대), 호주(0.3만대) 순
- '22년 KG모빌리티의 판매량은 EU28, 칠레, 호주에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37.3% 증가, 29.6% 감소, 60.6% 증가
- (시장별 점유율) KG모빌리티가 칠레를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
- '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0.3%p 줄어든 1.3%
- * KG모빌리티 칠레 시장점유율: (19下) 1.4 → (20下) 1.0 → (21下) 1.6 → (22下) 1.3



자료: Mark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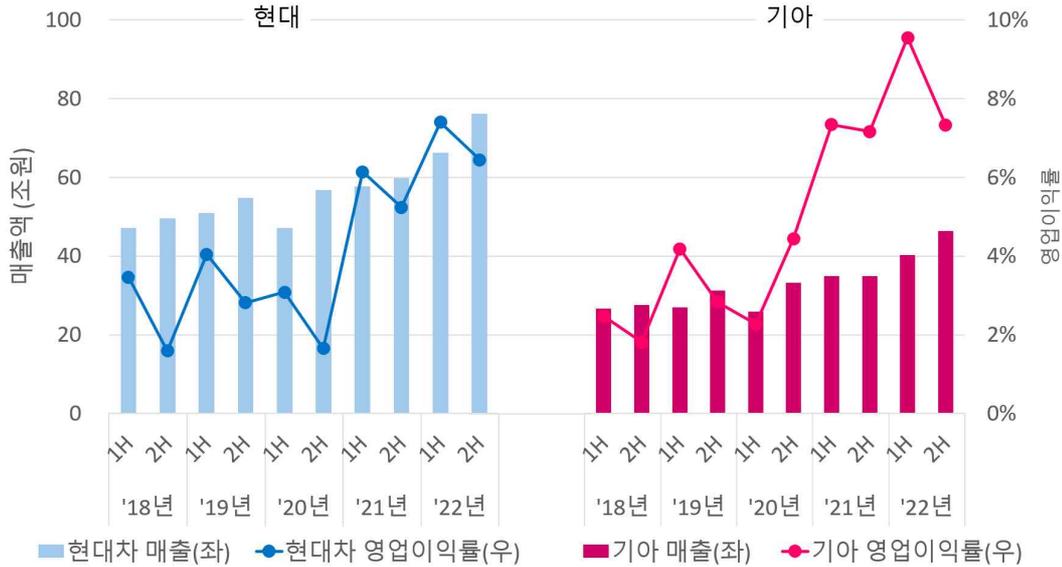
4. 국내 제조사 매출 및 동향

(현대차 그룹) 현대와 기아는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22년 하반기 매출은 각각 27.3%, 32.6% 늘어난 76.2조원, 46.3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현대자동차 및 기아는 '22년 3분기 세타2 GDI 엔진관련 품질비용이 발생했으나 우호적인 환율, 판매량 증가, 고수익 차량 중심 판매 등 평균판매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 확대
- (현대) '22년 하반기 현대의 매출액은 27.3% 늘어난 76.2조원이며 영업이익은 56.6% 증가한 4.9조원으로 영업이익률 6.4% 기록
 - 고금리와 경기침체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시장점유율 지속적 확대로 매출 증가
 - 2023년부터 수소 시내버스 및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도입하면서 제주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에 협력
 - 울산에 '25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 계획
 - 현대차는 인도 사업 확장을 위해 GM공장 인수를 추진 중
 - 현대차그룹은 SK온과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전기차 30만대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계획
- (기아) '22년도 하반기 기아의 매출액은 32.6% 늘어난 46.3조원이며 영업이익은 35.6% 증가한 3.4조원으로 영업이익률 7.3% 기록
 - 기아는 새로운 순수전기차 모델 EV9 판매 예정으로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확대될 전망
 - 태국 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혼합공장 설립 추진 중이며 완공 시 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 경기도 화성에 '25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계획
 - IRA영향으로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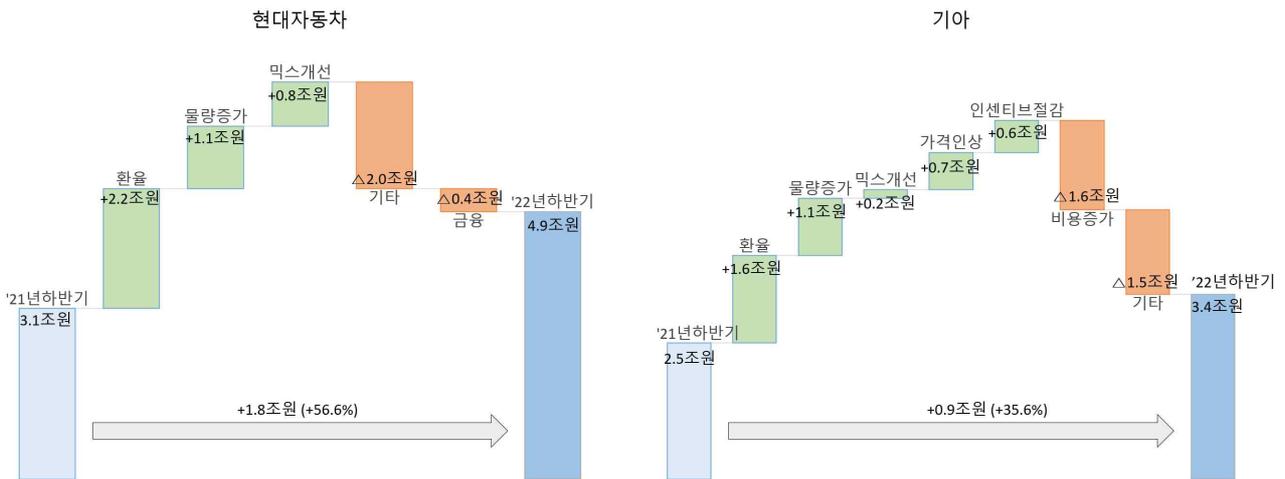


현대차그룹 매출 및 영업이익률



자료: 전자공시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증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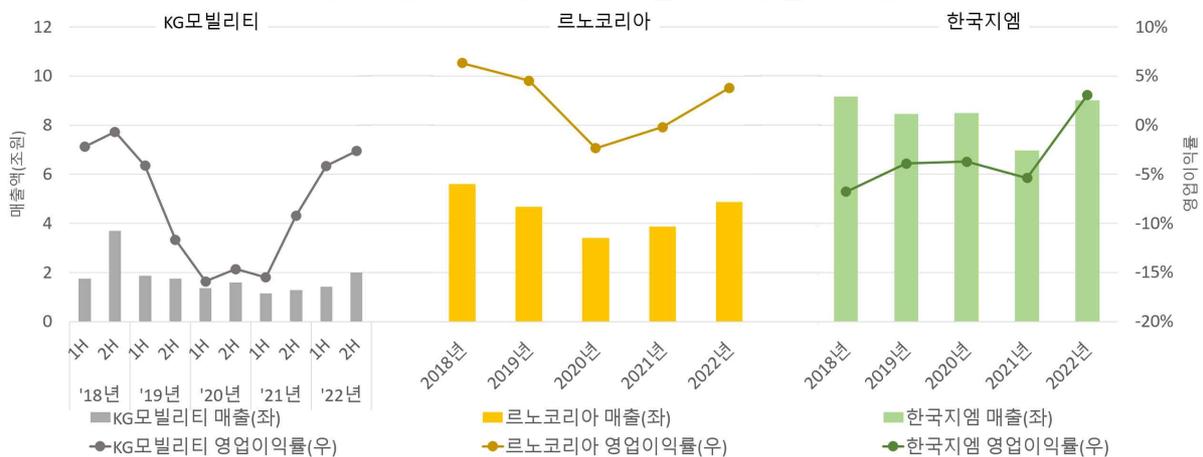
주) 믹스개선: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비중 확대

자료: 각 사

(기타) 2022년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각각 9년과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KG모빌리티도 판매량 증가로 매출 확대

- (KG모빌리티) '22년 하반기 KG모빌리티의 매출액은 56.2% 증가한 2조원이며 영업손실은 36.6% 감소한 529억원 기록
 - '23년 쌍용자동차에서 KG모빌리티로 사명 변경
 - 기업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와 글로벌시장 현지판매 증대로 매출 증가
 - '23년 KG모빌리티는 신차 렉스턴 뉴 아레나, 렉스터 스포츠&칸 쿨멘 및 전기차 모델 토레스EVX 공개
 - '23년 4월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
 - KG모빌리티는 베트남 킴롱모터와 베트남 현지 조립생산(KD) 계약을 체결하고 '24년부터 생산계획
- (한국지엠) 우호적인 환율로 인한 가격강세로 '22년 한국지엠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9.2% 늘어난 9조원이며 영업이익은 2,758억원 기록하며 흑자전환
 - 반도체 가용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적자 탈피
 - 일부 차량 단종에 따라 '22년 12월 초 부평 2공장 가동 중단
- (르노코리아) '22년 르노코리아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0% 늘어난 4.9조원이며 '21년 80억원규모의 영업손실에서 '22년 1,848억원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
 - XM3 중심으로 '22년 르노코리아의 수출 대수가 증가하며 흑자 전환

국내 완성차 제조사 매출 및 영업이익률



자료: 전자공시

III. 시사점 및 전망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2023년에도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세 둔화 우려

- 반도체 공급난은 전년 대비 완화되었으나 완전한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완성차 제조사별로 반도체 및 부품 공급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판매량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전망
- KMPG 조사²⁾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고위 경영진 151명 중 65%가 '23년에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될 전망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음

* 주요국 기준금리('22.5.8→'23.5.8)(%): (미국) 1.00 → 5.25, (EU) 0.00 → 3.75, (한국) 1.50 → 3.50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중국 및 유럽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반면 미국은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별 성장세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3년 4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 계획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확대할 전망
- 친환경자동차 확대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이 비교적 낮았던 미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³⁾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리스 비중은 미국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한 '22년 12월 9.7%에서 '23년 3월 34.3%까지 증가
- 현대차그룹은 '북미 현지생산' 및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북미 현지 생산 등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리스·렌트 전기차 비중 확대 계획

²⁾ KMPG(2023), Navigating short-term volatilit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³⁾ PIIE(2023), Industrial policy for electric vehicle supply chains and the US-EU fight ov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 중국 정부는 '23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여 판매량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나 구매세 감면정책은 '23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
 -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나 상하이, 저장 등 지방 정부가 소비 촉진 정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 유럽은 보조금 축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기차 충전비용 상승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 우려
 - 독일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구매 시 지원하던 최대 4,500유로의 보조금을 '23년 폐지하였으며 4만 유로 미만 순수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000유로에서 '23년 4,500유로로 축소
 - 영국 및 스웨덴은 각각 '22년 6월, 1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